

##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관련 변수

이 순 형\*

이 강 이\*\*

- I. 문제의 제기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논의

###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지만, 이와 동시에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정신적 발달에 따른 많은 내적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지 여부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업이 된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이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갈등에 적응해 나가는 내부정신적 과정으로 방어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Freud이다. 즉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 또는 내적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각할 때 그 변화를 지각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내적 갈등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하는 무의식적 조절기제(Freud, 1937)로서 방어기제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어기제들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어기제 연구는 연구자들간에 각 방어기제의 정의 및 평가기준이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주관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방어기제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자간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몇 가지의 방어양식으로 집단화시켜서 분석해보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그러한 연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어양식으로 일생에 걸쳐 개인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을 반영하는 성숙한 방어양식이 규명되었다(Andrews, Pollock & Stewart, 1989; Bond, Gardner, Christian & Siegel, 1983; McCullough, Vaillant & Vaillant, 1986; Vaillant & Drake, 1985). 이처럼 성인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특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을 살펴 본 연구(Hauser, Jacobson, Noam & Powers, 1983; Jacobson, Beardslee, Hauser, Noam, Powers, Houlihan & Rider, 1986; Vaillant, 1971, 1977)가 극히 소수에 불과할 뿐더러, 그나마 조사대상으로 정상집단과 환자집단을 동시에 선정하여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반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양상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도 대부분이 방어양식에 따른 적응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개인의 특성, 즉 인구배경요인에 의해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Vaillant, 1971, 1977),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

어양식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 본 연구는 없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일부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Jacobson et al., 1986), 그 결과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일반적 성차를 의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이외에도 아동기의 능력차가 성인기에 나타나는 방어양식의 성숙 정도를 예언해 준다는 연구결과(Vaillant, Bond & Vaillant, 1986)를 볼 때, 아동기의 능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의 방어양식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아직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볼 때,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를 규명하고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학력이 방어양식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먼저 방어기제의 정의와 방어양식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방어양식의 기능과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겠다.

### 1. 방어기제의 정의

Freud로부터 출발한 방어기제의 개념에는 방어기제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 과정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본 전제로 인해 지금까지의 방어기제 연구는 많은 제한점과 문제점을 가진다. 과연 어떤 행동을 방어기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간에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종류와 그 과정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내부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적으로 연구자의 관찰과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Bond(1983)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에는 무의식적 측면 이외에 의식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방어기제의 연구에 객관적 측정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사람들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특정한 방어기제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 이러한 행동이 늘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데, 이처럼 특정한 방어기제의 사용이 자신의 갈등 해결에 실패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방어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사람들은 타인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어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라 Bond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정확

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기제의 개념에 의식적인 측면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Vaillant, Bond & Vaillant, 1986), 관찰 및 면접과 같은 기존의 주관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ond의 개념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다. 따라서 방어기제는 인간이 자신의 내적욕구와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계획하는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내부정신적 과정 (Bond et al., 1983)으로 정의될 수 있다.

## 2. 방어양식의 구성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Freud, 1937; Hann, 1977; Hauser et al., 1983; Kaplan & Sadock, 1981; Perry, 1986; Vaillant, 1971, 1977) 결과,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어기제가 규명되었으며, 대표적인 방어기제의 종류와 그 정의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방어기제의 종류 및 정의<sup>1)</sup>

명 칭	정 의
실연 <i>acting out</i>	무의식적 충동이나 욕구, 감정에 수반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부정적 결과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으로 충동, 욕구 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소극적 공격 <i>passiv-aggression</i>	타인을 향해 간접적이고 비폭단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투사 <i>projection</i>	허용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감정, 충동 또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어떤 대상에게 허위로 투사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1)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완전한 목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일한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방어기제라도 연구자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용어의 불일치와 평가기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지속적인 경험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명 칭	정 의
회회 <i>regression</i>	자기 자신의 감정, 충동 또는 생각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버리는 방어기제
승화 <i>sublimation</i>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유머 <i>humor</i>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의 재미있는 측면 또는 아이러니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불쾌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억제 <i>suppression</i>	갈등의 원인이 되는 충동, 욕구, 문제 또는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반동형성 <i>reaction formation</i>	개인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원래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 생각 또는 감정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부정 <i>denial</i>	타인에게는 명백하게 보여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대체 <i>displacement</i>	갈등을 야기시키는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고 덜 중요한 대상으로 향해 일반화시켜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이타심 <i>altruism</i>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헌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예상 <i>anticipation</i>	어떤 문제나 갈등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미리 예상하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미리 고려해 봄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금욕 <i>asceticism</i>	어떤 경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즐거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미리 그러한 경험을 피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철회 <i>withdrawal</i>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감정, 생각 또는 경험을 회피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신체증상화 <i>somatization</i>	실제의 신체적 불편과는 상관없는 신체적 증후의 선입견에 의해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제휴 <i>affiliation</i>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환상 <i>fantasy</i>	환상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억압 <i>repression</i>	실제 경험하고 있는 욕구, 감정, 생각 또는 경험을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도록 동기화됨으로써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원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위의 방어기제들을 각각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따라 나누어보면, 실연, 소극적 공격, 억압, 투사 및 퇴행 등과 같이 개인의 궁극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방어기제들과 승화, 유머, 예상, 억제 및 금욕 등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어기제들로 크게 분류된다.

여러 종류의 방어기제들을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집단화시킨 일련의 방어기제가 방어양식인데, 지금까지 규명된 주요 방어양식은 <표 2>와 같다.

방어양식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아동과 청소년 및 정신치료를 받는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방어양식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신병적 방어양식은 5세 이하의 아동과 성인의 환상 또는 꿈에서 발견되는 방

어양식으로, 실제에 근거하지 않은 기만적 투사를 하거나 부정 등을 통해 개인의 내적 갈등이나 불안을 해결하는 행동양식이다. 또한 신경증적 방어양식은 신경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방어양식으로, 갈등이나 본능적 욕구를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내적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는 행동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적 방어양식과 신경증적 방어양식은 정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집단에게서 발견된다. 그리고 성숙한 방어양식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방어양식으로, 외부 현실과 개인적 욕구 및 갈등을 통합시키는 건강한 행동양식이다.

그런데 방어양식의 구성에 대한 위의 내용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각 방어양식의 명칭과 방어양식을 구성하는 방어기제의 종류에 부분적

<표 2> 방어양식의 구성

방어양식 연구자	미성숙한 방어양식	정신병적 방어양식	신경증적 방어양식	성숙한 방어양식
Vaillant (1971)	투사, 소극적 공격, 정신분열증적 환상, 실연, 해체, 심기증	기만적 투사, 정신병적 부정, 왜곡	억압, 대체, 반동형성, 주지화	이타심, 유머, 억제, 예상, 승화
Bond et al. (1983)	실연, 퇴행, 철회, 투사, 소극적 공격, 금지	원시적 이상화, 전지전능, 분열	유사이타심, 반동형성	승화, 유머, 억제
Kaplan & Sadock (1981)	실연, 신체증상화, 심기증, 투사, 퇴행, 소극적 공격, 차단, 정신분열증적 환상	부정, 왜곡, 투사	통제, 대체, 금지, 주지화, 고립, 합리화, 억압, 구체화, 반동형성	이타심, 예상, 금욕, 유머, 승화, 억제
Snarey & Vaillant (1985)	투사, 해체, 심기증, 소극적 공격, 실연, 가벼운 부정		억압, 주지화, 반동형성, 대체	억제, 이타심, 예상, 승화, 유머

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방어양식의 구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방어기제의 평가기준과 조사대상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어양식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Andrews et al., 1989; Bond et al., 1983; Jacobson et al., 1986; Perry & Cooper, 1986; Snarey & Vaillant, 1985; Vaillant, 1971, 1977)은 정신적 질병이나 신체적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하여 방어양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방어기제의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방어기제 용어부록(Hauser et al., 1986; Kaplan & Sadock, 1981; Perry, 1986; Vaillant, 1971)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방어기제의 평가기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된 4가지의 방어양식과 방어기제를 정상적인 일반 청소년 집단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반 청소년의 방어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3. 방어양식의 기능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어떠한 방어양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과 사회적응 및 자아발달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성인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스트레스, 불안 및 갈등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Bond et al., 1983; Jacobson et al., 1986), 정상집단은 환자집단에 비해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스트레스, 불안 및 갈등을 잘 처리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백

여명의 빈곤층 청소년을 30여년에 걸쳐 조사한 바(Vaillant, Bond & Vaillant, 1986; Vaillant & Frake, 1985)에 따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별로 사용하지 않은 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성숙 정도는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Vaillant, Bond & Vaillant, 1986; Vaillant & Drake, 1985)결과,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에 비해서 낮은 비행률과 알콜중독률을 보였고, 성인기 이후에는 낮은 실질률과 높은 수입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와 Cooper(1989)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환자들은 증상이 개선됨에 따라 이전보다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인해 대인관계나 직업적 성취 등의 심리사회적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함을 보여준다.

16세부터 69세까지의 정상인 111명과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방어양식과 자아발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Bond et al., 1983)에 따르면, 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정상인은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을 보이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집단은 낮은 수준의 자아발달을 보였다. 방어양식과 자아발달

의 관계는 12세부터 16세까지의 일반청소년과 당뇨병 및 정신적 질병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Jacobson et al., 1986)에서도 나타나서, 일반청소년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서 억제, 이타심, 금욕 등 성숙한 방어양식에 포함되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과 자존감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숙된 방어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들을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으로 종합해서 본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는 부적응적 기능을 하는 미성숙한 방어양식으로부터 적응적 기능을 하는 성숙한 방어양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방어양식의 발달과 관련 변수

Vaillant와 Drake(1985)는 청소년의 비행을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3백여명의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Glueck(1950, 1968)의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방어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인기에 발견되는 방어양식의 성숙을 설명해 주는 변수로 정신건강 상태와 아동기의 능력 차이가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인이 되었을 때 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의 아동기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아동기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체벌문제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정서적 성숙을 보였으며, 근면성의 발달과업을 잘 성취하고, 지능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지능지수

가 성인기에 나타나는 성숙한 방어양식의 증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아동기에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인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방어양식의 성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인기의 정신건강 상태는 방어양식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건강이 양호할수록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처럼 성숙한 방어양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건강과 아동기의 능력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들이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부모는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서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이 훈구, 1980)고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 변수는 자녀의 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 인숙, 1985; 장 영애, 1987; Yeates et al., 1983).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주는 부모의 학력은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에 따른 방어양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어양식에 영향을 주는 두번째 변수로 연령을 들 수 있으나, 연령에 따른 방어양식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방어양식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한 Vaillant(1971, 1977)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한 방어양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연령대에 국한된다고 보다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정신건강 상태에 더 많이 좌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성숙한

방어양식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청소년기 이후로는 위의 방어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Vaillant, 1977)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방어양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세번째로 상정될 수 있는 변수는 성별이다. 성별에 따라 방어양식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일부 방어기제의 사용에 대한 성차가 유명(Jacobson et al., 1986)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전반적인 방어양식의 성차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방어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어떠한 종류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인구배경 변수(연령, 성별, 부모의 학력)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1.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2.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3.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과 측정도구의 구성 및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해도와 응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1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 남녀 중고등학교의 해당 학년 별로 15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한 후, 1991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620부의 질문지 중 편부모 가정의 학생과 부실기재된 응답 등 57부를 제외한 총 563명의 응답을 분석대상 자료로 정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Bond(1983)가 개발한 방어양식질문지 *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조사하는 측정도구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실연, 퇴행, 소극적, 공격, 투사, 승화, 이타심, 유머, 억제, 예상, 신체증상화 및 대체의 11개 방어기제에 대한 총 36문항으로 방어양식질문지가 구성되었다.<sup>2)</sup>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강이(1991), "청소년의 방어양식과 통제소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본 질문지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화 전공자 3명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73으로 나타났다.

방어양식질문지의 문항은 개인이 어떤 방어기제의 사용을 의미하는 개별 문항의 내용을 평소에 어느 정도 실행하고 지각하는지의 정도를 '반드시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7점 척도로 물어보고 있으며, 따라서 문항의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교육 연구전산원의 SPSS-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를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학력에 따른 방어양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추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와 인구배경 변수에 따른 방어양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

### 1.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종류를 규명하기 위하여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을 요인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선정되었다. 각 요인별 해당 방어기제와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요인 1은 실연, 대체, 퇴행, 소극적 공격, 투사 및 신체증상화의 6가지 방어기제로 구성되고 요인 2는 유머, 이타심, 예상, 억제 및 승화의 5가지 방어기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기제의 사용 정도에 대한 응답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크게 2가지 종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Andrews et al., 1989; Bond et al., 1983; Perry & Cooper, 1986; Snarey & Vaillant, 1985; Vaillant, 1971, 1977)에 따르면, 요인 1을 구성하는 방어기제들은 개인의 내적 갈등을 비효율적인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바

<표 3> 방어기제의 요인부하량과 각 요인별 해당 방어기제

방어기제	요인 1	요인 2
실연	.80	-.10
대체	.68	-.02
퇴행	.66	-.06
소극적 공격	.66	.06
투사	.56	-.13
신체증상화	.53	.12
유머	.02	.75
이타심	-.02	.65
예상	.01	.65
억제	-.14	.64
승화	.02	.53
고유치	2.65	2.07
설명변량(%)	24.0	18.9

람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동양식들이다. 또한 요인 2를 구성하는 방어기제들은 개인적 감정과 대인관계 및 외부 실재를 통합시키는 건강한 기제들로,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성취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두 가지 종류로서 요인 1을 '부적응 양식', 요인 2를 '적응양식'으로 칭하겠다.

두 가지 요인은 요인별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부적응 양식은 청소년의 방어행동의 전체 변량 중 24.0%를 설명하며, 적응 양식은 전체 변량의 1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인분석 결과 제시된 부적응 양식과 적응 양식은 청소년의 전체 방어행동 중 42.9%를 설명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경험과 외부 실재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양식으로 부적응적 방어양식과 적응적 방어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응적 방어양식보다는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방어양식의 발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이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 나타난 부적응 양식과 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가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가설별로 조사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이 연령에

〈표 4〉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

집단 방어양식	중 1 M (SD)	중 3 M (SD)	고 2 M (SD)	F
부적응 양식	3.03(0.85)	2.89(0.80)	3.13(0.68)	4.33*
적응 양식	4.42(0.91)	4.39(0.86)	4.44(0.69)	0.24

\*  $P < .05$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리고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가 어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1집단과 중3집단은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고2집단은 중3집단에 비해 부적응 양식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적응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선행연구 결과(Vaillant, Bond & Vaillant, 1986; Vaillant & Drake, 1985)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손상이 심한 사람은 심리사회적 손상이 적은 사람에 비해 부적응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의 상태가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학생은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김 광일, 김 명정, 김 이영, 원 호택, 1983), 또한 고등학생은 중학생이나 대학생

에 비해 학업성취에 따르는 강박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 이 철호, 원 호택, 1986).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고등학생의 정신 건강 실태로 인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적응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처럼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지어 본다면, 결국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보다는 제 3의 변수, 예컨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부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와는 달리, 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적어도 청소년의 경우는 연령의 증가가 방어양식의 성숙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둘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부적응 양식과 적응 양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양식의 성숙이 성별과는

무관하다는 Vaillant와 그의 동료들(198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방어기제별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신체증상화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분적 성차는 선행연구 결과(Jacobson et al., 1986)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녀에 따라 갈등을 처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주로 갈등을 외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여자는 갈등을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Cramer & Carter, 197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성별에 따른 방어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부적응 양식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적응 양식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사용하는 적응 양식

<표 5> 부모의 학력에 따른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

집단	부의 학력			F	모의 학력			F
	중졸이하 M (SD)	고졸 M (SD)	대졸이상 M (SD)		중졸이하 M (SD)	고졸 M (SD)	대졸이상 M (SD)	
부적응 양식	3.07 (0.78)	3.01 (0.75)	3.01 (0.82)	0.21	3.00 (0.75)	3.03 (0.79)	3.01 (0.82)	0.99
적응 양식	4.18 (0.82)	4.45 (0.85)	4.47 (0.79)	4.27*	4.28 (0.83)	4.51 (0.83)	4.41 (0.79)	3.63*

\* P < .05

의 사용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성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가 어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추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부의 학력이 고졸 및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적응 양식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모의 학력이 고졸인 청소년 집단이 적응 양식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부모의 청소년 자녀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적응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부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방어양식의 성숙을 가져오는 아동기의 변수를 종단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Vaillant, Bond & Vaillant, 1986; Vaillant & Drake, 1985)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낮거나 가정환경이 취약하다고 해서 사회계층이 높거나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기에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근면성의 발달단계를 잘 성취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적게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 증가를 설명해 주는 이

상의 요소들은 개별 아동의 능력을 의미하며, 아동기의 다양한 능력 발달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바로 부모의 학력이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개인적 능력 또한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적응 양식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적응 양식의 사용 정도가 증가하는 것은 부모의 의도적인 유도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즉 학력이 높은 부모는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 적응 양식을 많이 사용할 뿐더러 자녀 또한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모가 사용하는 방어양식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은 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이 성인의 사회적 상향 이동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Snarey & Vaillant, 1985)와 지능이 성인기의 적응을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변수라는 연구결과(Kohlberg, Ricks & Snarey, 1984)에 따른 것이다.

한편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발달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 및 부모의 학력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성별, 연령×부모의 학력 및 성별×부모의 학력의 3가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청소년들은 내적 욕구와 외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적응적 방어양식과 적응적 방어양식을 사용한다. 즉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

응을 성취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응적 방어양식과 내적 갈등을 비효율적이며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함께 사용하여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고2집단이 중1집단과 중3집단에 비해서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학업성취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압박증이 더 심하고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수준은 이들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은 지나치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상황에서는 내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 않지만,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다르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내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적응적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성장한 후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Vaillant, Bond, & Vaillant, 1986; Vaillant & Drake, 1985), 학력이 높은 부모는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의 전반적인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은 부모는 학력이 낮은 부모에 비해서 적응적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할 뿐더러 자녀가 자신과 같은 방어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양식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좌우된다기 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적응적 방어양식의 사용 정도에 관한 이상의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양식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서 야기되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적 방어양식과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모두 사용하며, 이 중 어떠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느냐는 청소년 자신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환경 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방어행동의 측면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문지와 함께 구조화된 면접 및 관찰을 병행한 조사연구가 요망된다.

비록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의 선행 연구가 전무한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은 유용한 추정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자녀가 사용하는 방어양식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의 모색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명정, 김이영, 원호택(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 1-39.
-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Andrews, G., Pollock, C., & Stewart, G. (1989), The Determination of Defense Style by Questionnair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5), 455-460.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ege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4), 333-338.
- Bond, M., & Vaillant, J. S. (1986),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nosis and Defense Sty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3), 285-288.
- Jacobson, A. M., Beardslee, W., Hauser, S. T., Noam, G., Powers, S., Houlihan, J., & Rider, E. (1986), Evaluating Ego Defense Mechanisms Using Clinical Interview: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iabetic an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dolescence*, 9, 303-319.
- Perry, J. C., & Cooper, S. H. (1989), An Empirical Study of Defense Mechanisms: I. Clinical Interview and Life Vignette Rating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5), 444-452.
- Snarey, J. R., & Vaillant, G. E. (1985), How Lower-and Working-Class Youth Become Middle-Class Adults: The Association between Ego Defense Mechanisms and Upward Social Mobility. *Child Development*, 56, 899-910.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Co.
- \_\_\_\_\_ (1983), Childhood Environment and Maturity of Defense Mechanisms. in Magnusson & Allan(eds.), *Human Developmen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343-352.
- \_\_\_\_\_ (ed.)(1986),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_\_\_\_\_ (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to Adult Adjust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6), 535-545.
- \_\_\_\_\_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 A 30 Year

Follow-up of 30 Men Selected for Psychologic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2), 107-118.

\_\_\_\_\_,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

*eral Psychiatry*, 43(8), 786-794.

\_\_\_\_\_, & Drake, R. E. (1985), Maturity of Ego Defenses in Relation to DSM-III axis II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6), 597-601.

## 〈ABSTRACT〉

## Defense Style Related to Demographic Variables of Adolescents

*Soon-Hyung Yi**Kang-Yi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defense style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variables for understanding their psychosocial adaptive abilities. The subjects were 563 twelve-, fourteen-, and sixteen-year-olds enrolled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in Seoul. To measure subject's use of defense styles,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 was used.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used maladaptive defense style and adaptive defense style.
2. Adolescents at high school used more maladaptive defense style than those in junior high school, but there was no age difference in their use of adaptive defense style.
3.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adolescents' use of defense style.
4. There was no difference in adolescents' use of maladaptive defense style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al level. But the higher parent's educational level, the more adolescents' use of adaptive defense style.